

경제+외교 글로벌형 총리 선택

■李 당선인, 한승수 총리 지명 배경

朴前대표·강원권 포용...고려대 중용 논란 피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새 정부 초대 총리로 한승수 유엔 기후변화특사를 지명한 것은 '인맥'보다는 '능력'을 우선시하는 인사 철학을 보여준 예로 평가된다.

또 박근혜 전 대표 측과 강원권을 포용하고, 고려대 인사 중용에 대한 논란을 일거에 피해가는 응징술로도 해석된다.

한 총리 지명자는 이 당선인과 개인적으로 특별한 인연이 없는데다 지난해 대선 당시 MB(이명박) 캠프에서 활동한 전력이 없으며 애초 총리 후보군에 포함돼 있지도 않았다.

하지만, 한 총리 지명자는 이 당선인이 요구하는 정치·외교·경제 3박자를 모두 갖췄다는 점이 일반적이다.

그는 노태우 정부 시절 상공부 장관, 김영삼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각각 역임했다. 외교통상부 장관 당선인 UN 총회 의장직까지

있었다. 새 정부의 '얼굴 마담'으로 '자원 외교'와 '세일즈 외교'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카리어'를 갖춘 것이다.

결국, 이 당선인이 경제와 외교실력을 두루 갖춘 글로벌형, 멀티플레이어형 총리를 선택한 것이다.

한 총리 지명자는 정치 감각도 갖췄다. 그는 13·15·16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으로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냈다. 정·관·학계에서 오랜 기간 다양한 역할을 맡아 '인맥'도 풍부하다.

특히 한 총리 지명자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이종 사촌 형부다. 그는 박 전 대표의 어머니 고 육영수 여사의 언니 육인순 씨의 사위다. 이 당선인은 애초 당내 화합을 위해 박 전 대표를 새 정부 '총리 카드'로 활용할 구상이었기 때문에 이번 인선은 박 전 대표 측을 배려했다는 쪽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한 총리 지명자가 강원도 태생이고 연세대 출신이라는 점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한 총리 지명자는 강원도 인맥의 '대부(代父)'격으로 4월 총선 강원도 표심 공략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선 고려대 출신이 성공한다는 '학력 시비'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이 같은 여러 장점은 1936년생의 고령인데다 정권을 바꿀 때마다 요직을 차지해 왔고, 과거 국보위에 참여했다는 점 등이 새 정부의 참신한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는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게 측근들의 해석이다.

이 당선자는 한 총리 지명자에 대해 "새 정권이 지향하는 국민화합 차원에서 매우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내각을 잘 화합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서 일할 뿐 아니라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화합하면서 협력, 국가 품격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활개 더붙어 일하는데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8일 새정부 첫 총리로 지명된 한승수 유엔 기후변화특사가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총리 국회 인준 파란불?

설 이후 본격 검증...국보위·철새정치인 논란 예상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한승수 유엔 기후변화특사를 새 정부 초대 총리로 지명하면서 총리 임명 동의를 국회에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식 다음날인 내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인사청문회 등 본격적인 검증 절차는 설 연휴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총리 임명동의안은 헌법상 현직 대통령만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당선인은 일단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개시 전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후 국회의장에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라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한 뒤 취임과 동시에 국회의 정식 임명동의를 받게 된다.

당선인의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른 인사청문 절차는 인사청문회에 준해 진행되므로 앞으로 국회는 이틀내에 13명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선임하고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와 관련,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인사청문과 임명동의가 사실상 하나의 절차이므로 '임명동의요청서'라는 명칭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고, 이후의 절차는 국회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 후보자는 30년 넘게 정·관·학계를 넘나들며 풍부한 국정경험과 정치 이력을 쌓았고 상공부장관,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등 역대 정부에서 3차례나 장관직을 거쳤다는 점에서 일단 '검증된 후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1980년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한 후보자가 신군부의 집권기반이었던 국가보위비상대책회의(국보위)에서 재무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이력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주요 검증 항목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한 후보자가 재정경제원 장관으로 있던 1997년 한보사태와 부실대출 책임을 지고 중도하차한 경력, 경제부총리로서 대외개방과 규제완화 정책을 주도한 것이 IMF 외환위기 초래와 관련이 있는 지의 문제, SK와 영영권 정식 임명동의의 절차가 맞는지 따지는 점, 론스타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김재창'의 고문을 역임한 경력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자주 당적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서도 '철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예비 야권 사이에서도 기류가 약간 다르다. 신당과 민주당은 '철저히한' 서도 찬반의 검증'을 다지는 수준이지만 민주노동당은 적극적인 반대 입장이다. /연합뉴스

한승수 총리 지명자 누구 30년간 정·관·학계 두루 경험

'이명박 정부'의 초대 국부총리로 지명된 한승수 유엔 기후변화특사는 30년 넘게 정·관·학계를 넘나들며 풍부한 국정경험과 정치력을 쌓은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특히 상공부 장관,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등 역대 정부에서 3차례나 장관직을 거치면서 '글로벌 마인드'와 '비즈니스 마인드'를 동시에 갖춰 이명박 당선인이 기준으로 제시한 '자원의교형 총리'에 최적인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1936년생으로 고품이라는 한계가 지적됐으나 최근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으로서 정력적인 활동을 벌인 것으로 '물재없음' 판정을 받아 그의 프로필에서 임명직 관직으로는 최고인 '재상(宰相)'을 맡게 됐

다.

총선 출생의 한 지명자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영국 요크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거쳐 영국 요크대, 케임브리지대,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20년 가까이 재직한 '경제통'이다.

한 지명자는 1987년 상공부 무역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관직에 임명된 뒤 이듬해 제13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 후보로 고향에서 출마, 국회에 입성하면서 '성공시대'의 서막을 연다.

노태우 정부에서 상공부 장관, 우루과이라운드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통상전문가로 거듭나 데 이어 김영삼 정부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아 외교 아전사령관인 주미대사

에 올랐다. 또 대통령 비서실장을 거치며 출세기도 달렸다.

문민정부 말기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에 임명된 후 한보철강 부도사태 등의 여파로 7개월 만에 물러난 뒤 대학으로 잠시 복귀했으나 2000년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 획득에 실패하고도 탈당한 뒤 신생민주당 간판으로 지역구에 출마해 3선의 영예를 안았다.

한 지명자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처조카 사위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이종사촌 형부라는 점도 총선을 앞두고 '당 화합'을 지켜내야 하는 이 당선인에게 매력 포인트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공무원=철밥통시대 지났다"

李 당선인, 공직사회 고강도 개혁 연일 주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연일 공직사회를 향한 고강도 변화와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지난 22일 공직자들에게 "이 시대에 약간의 걸림돌이 될 정도로 위태수위에 온 것 같다"고 언급한 데 이어 28일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공무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파견 공무원이 개혁의 주도세력이 돼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의견조사 정부조직 개편으로 뒤송송한 공직사회를 보듬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을 제거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실제로 이 당선인은 "나는 공직자들이 매우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고 공직사회에 대한 믿음을 표시하면서 서울시장 퇴임 후 공무원노조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는 사실까지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내 분위기는 공직사회의 개혁을 주문하는 쪽으로 옮겨갔다. 이 당선인은 "한국 공무원이 이 시점에 한번 더 분발할 때가 됐다", "변화를 주도해야 할 사람이 주도를 맡고 변화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총대중 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개개인의 프로정신과 봉사정신 무장을 당부한 뒤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하나의 사조는 공무원이 평생 신분보장을 받고 사는 좋은 직장이라는 사고"라면서 "공무원=철밥통"이란 인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거론했다.

이미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는데 이어 경우에 따라 공직사회의 인사시스템에 추가 손질을 가할 수 있다는 경고로도 들릴 수 있는 대목이다. /연합뉴스

■ 한승수 총리 지명자 약력

평소 온화한 성격이나 업무에는 치밀한 외유내강형. 전 대한적십자사 부총재이자 현 고려대 여자 교수회장이던 부인 홍소자씨와 1남 1녀.

▲1936년 강원도 춘천 출생 ▲춘천고 ▲연세대 정의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영국 요크대 경제학 박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국제경제학회 회장 ▲제13.15.16대 국회의원 ▲상공부 장관 ▲주미대사 ▲대통령 비서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민주국민당 사무총장·최고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유엔총회 의장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 ▲한국포털업 총재·유엔기후변화 특사(현). /연합뉴스

한 총리 지명자 특별한 '茶山 인연'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명박 차기 정부의 총리로 지명된 한승수 유엔기후변화특사의 '다산(茶山) 인연'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다산 정약옹(丁若鏞·1762~1836) 선생은 조선후기의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사상이 핵심인 실학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새 정부의 실용공과와 일맥상통한 부분이 적지 않다.

한 총리 지명자는 1982년 조순 전 서울시

장과 김승훈 전 농림부 장관, 김갑교 한양대 명예교수, 윤석범 전 동아대 총장 등 당시 경제학계를 중심으로 내로라 하는 전국 교수 16명과 '다산화'를 만들었다.

당시 이 화합의장은 조 전 서울시장, 간사는 김 전 농림부 장관이 각각 맡았으며 이듬해에는 다산 초당이 있는 강진군 도암면 민덕리에 목조건물인 '다산회당'을 지어 1년에 2차례씩 모임을 가졌다.

/*연합뉴스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062)220-0524
FAX:227-9500

주유소매매

●광산구 소촌동 권내 30m도로변
●대지면적:1,376㎡ ●건적면적:297㎡
●주유기(혼합복식) 6대
●기름탱크 30,000L/M:4기
●용자금 89천 원 ●매매기 상담후 결정

☎011-611-3040

산행안내

1월 30일(수)
▲광주남부산악회 전남 해남 두문산 1일3회(19시) 광주역 출발
T011-612-3783

1월 31일(목)
▲광주전국산악회 태백산 특공분꽃산행 2월1일(목) 06시 광주역출발
▲광주유니버시티 산악회 2월1일(목) 06시 광주역출발
▲광주도요산(도) 부주 덕유산 눈꽃산행 2월2일(목) 07시30분 광주역출발

2월 3일(일)
▲광주원산악회 부주 덕유산 영적봉 2월3일(일) 07시 광주역출발(광주역 앞한국시멘트문예회관출발) 광주역 출발 후다듬기매:광주원산악회 T011-647-7079,010-969-3619
▲광주도요산(도) 부주 덕유산 눈꽃산행 2월2일(목) 07시30분 광주역출발 후다듬기매:광주원산악회 T011-605-3477 ▲빛고을외교문화인재개발원 2월3일(일) 07시30분 광주역출발(광주역 앞) 후다듬기매:광주원산악회 T011-900-5364,09-656-9288 ▲나시모산악회 2월3일(일) 07시30분 광주역출발(광주역 앞) 후다듬기매:광주원산악회 T011-643-1804,266-7223

2월 3일(일)
▲광주원산악회 부주 덕유산 영적봉 2월3일(일) 07시 광주역출발(광주역 앞) 후다듬기매:광주원산악회 T011-647-7079,010-969-3619
▲광주도요산(도) 부주 덕유산 눈꽃산행 2월2일(목) 07시30분 광주역출발 후다듬기매:광주원산악회 T011-605-3477 ▲빛고을외교문화인재개발원 2월3일(일) 07시30분 광주역출발(광주역 앞) 후다듬기매:광주원산악회 T011-900-5364,09-656-9288 ▲나시모산악회 2월3일(일) 07시30분 광주역출발(광주역 앞) 후다듬기매:광주원산악회 T011-643-1804,266-7223

분실

필프회원증
No J01501047
광주C.C
임대현
상기 회원증(大,小)을 분실 하였기 공고함.

정정 공고

본지 2008년 1월 4일자 2면에 게재된 대동건설주식회사 분할합병및주권제출공고중 대표이사 박정열을 박정열로 정정 공고합니다.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김승수(270925-1017211)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 시행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시간번호: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년 203
공고인:전금순, 김성주, 김한주, 김창주, 김순이, 김미숙
한정승인수리일:2008. 1. 17
공고기간:2008. 1. 29~2008. 3. 28
연 락 처:광주 남구 진월동 295 대우아파트 201-1509
전금순(010-8485-3980)

물품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Item	명	개	입찰의달일(모집)	입찰의달일(모집)	입찰의달일(모집)
1	동행물품구매입찰공고	1	2008.1.31. 14:00	2008.2.14. 00:00	2008.2.14. 30
2	동행물품구매입찰공고	1	2008.1.31. 14:00	2008.2.14. 00:00	2008.2.14. 30

2. 입찰방법: 일반 공개 입찰
3. 낙찰: 동행물품
4. 계약: 낙찰자는 최저가계약자를 선정한다.
5. 계약금: 낙찰자는 계약금(계약금액의 10%)을 계약일로부터 2일 이내에 납부한다.
6. 계약금: 낙찰자는 계약금(계약금액의 10%)을 계약일로부터 2일 이내에 납부한다.
7. 입찰보증금: 낙찰자는 계약금(계약금액의 10%)을 계약일로부터 2일 이내에 납부한다.
8. 입찰보증금: 낙찰자는 계약금(계약금액의 10%)을 계약일로부터 2일 이내에 납부한다.
9. 기타사항: 입찰자는 본 공고를 읽고, 본 공고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숙독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입찰공고(061-470-1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29일
동아인재대 산학협력단장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합격률 1위

기본서 이론 2개월 완성
"첫진도 시작반"

개강 2월 1일

주택관리사 첫진도 시작반 2개월 완성

국비무료
고용보험가입공과
수강료 한 톨

광주고시학원 본원
227-8003 (7)도청 앞 전일빌딩 뒤
971-0002 박마르 침당빌딩 앞 정문층 4F